

‘씨클’서 광기 어린 천재 역 한 상진

“내인생의 캐릭터 만나 폭주하고 있어요”



냉혹한 이중 연기로 인기몰이
드라마 속 다섯 시대 연기 “재밌어요”
김강우·여진구·공승연 등 연기 극찬

“한 드라마 안에서 다섯개의 시대를 연기하고 있어요. 배우로서 이런 기회는 다시 없을 행운이죠.”
tvN 월화극 ‘씨클: 이어진 두 세계’에 출연 중인 한상진(40)은 “오늘까지 나올까 밥샘 촬영 중인데 드라마가 너무 재미있어 하나도 피곤하지 않다”며 웃었다.
그는 극중 천재 과학자이자 미래 도시를 통제하는 휴먼비의 회장 박동건을 연기하고 있다.
SF 드라마인 ‘씨클’에서 한상진은 2007년, 2008년, 2017년, 2022년, 2037년의 다섯 시대를 배경으로 연기를 펼치고 있다. 그런데 이 게 순차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는 극중 대학생부터 50대 중년까지를 매회 만나고 있다.
“시대마다 분장이 조금씩 다 달라요. 안경도, 헤어스타일도, 의상도 세밀하게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작가님들이 대본에 다 설정을 해놓았고, PD님도 굉장히 섬세하게 연출을 해서 작은 변화도 다 신경 쓰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매회 분장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시대가 바뀔 때마다 화장과 헤어스타일을 다 새롭게 해야 하거든요. 그래도 이런 경험이 어디 있었어요. 재미있습니다.”
‘씨클’은 2007년 갑자기 출현한 한 외계인으로 인해 과학자들이 기억을 편집하는 기술을 개발해내는 데 성공하고, 그것을 2037년 미래 사회에 적용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한상진은 “SF드라마라고 해서 처음에 반신반의했는데 대본이 너무 좋았다”며 “물론 미국 SF 드라마에 비해 CG는 못 따라가지만 이야기로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고, 국내 SF드라마를 개척한다는 의미에서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가 연기하는 박동건은 인류의 진보라는 명목하에 기술 발전에 집착하는 광기

어린 천재다.
“사프한 과학자 이미지를 위해 살을 빼고, 촬영을 하면서 더 빠져서 6kg 정도 빠졌다”는 그는 “처음에는 그냥 수재인줄 알았는데 연기하다 보니 박동건이 천재더라”며 깔깔 웃었다.
“박동건 입장에서는 자신의 모든 행동이 과학자로서 당위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있어요. 기억을 지운다는 게 윤리적인 문제가 있지만 박동건으로서서는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 거죠. 세상을 발전시키려고 연구하고 개발한 거거든요. 다만 그러다가 광기를 띠게 됐는데 본인은 모르죠. 저는 이런 역할을 맡으면서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달려보자 했어요. 다행히(?) 시청자들이 ‘비열해 보인다’고 해주시네요.(웃음)”
불과 20년 뒤 근미래지만 드라마 속 2037년에는 기억을 조작하는 일이 유행하고, 인간복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미세먼지가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황당무계한 것 같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드라마와 같은 상황을 생각하면 무섭고 두렵죠. 그런데 20년 뒤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몰라요. 복제기술이 윤리적인 문제를 동반하지만, 그것을 통해 불치병도 정복하고 인구 절벽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기억을 지우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는 또한 “미세먼지 부분은 특히 공감이 간다. 우리가 촬영을 진행할 때도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었다”면서 “지금부터 기후 대비를 안 하면 20년 뒤 드라마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상진은 함께 연기하는 후배 여진구(20), 공승연(24)을 극찬했다.
“나는 그들 나이 때 그렇게 연기를 못했는데, 여진구와 공승연은 연기를 너무 잘해요. 지금처럼 잘 성장하면 세계를 뒤집을 연기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싶어요. 드라마를 유지하는 두 축이 여진구, 공승연인데 둘이 아니었다면 드라마가 지금처럼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을 것 같아요. 김강우야 워낙 잘하는 친구고요. 제가 강우랑 대치하는 장면들 찍으면서 강우의 치열한 연기가 감탄했습니다. 강우가 눈물을 흘리며 동생이 어딴냐고 묻는 장면에서 하마터면 대본에 없던 사실을 말해버릴 뻔 했더니깐요.(웃음)”
그는 “현재 마지막회를 찍고 있는데 남은 2회 더 센 반전들이 남아있다”며 “놀라운 반전들이 남아있으니 꼭 끝까지 봐달라”며 웃었다.
/연합뉴스



황치열 첫 미니앨범 ‘비 오디너리’
10만 장 돌파...솔로 가수 기근 해소

가수 황치열의 첫 미니앨범 ‘비 오디너리’(Be ordinary)가 발매 첫주 판매량 10만 장을 돌파했다.
21일 음반 판매량 집계 사이트인 한타차트에 따르면 지난 13일 출시된 ‘비 오디너리’는 14~20일 집계에서 판매량 10만3787장을 기록했다.
소속사 하우엔터테인먼트는 “그룹이 아닌 솔로로 데뷔한 가수의 단일 앨범이 10만장 이상 판매된 것은 2013년 조용필의 19집 ‘엘로’ 이후 4년 만에 ‘최다’라며 “황치열이 남자 솔로 가수 기근을 해소할 새로운 얼굴로 떠올랐다”고 기대했다.
반면, 그룹으로 데뷔해 솔로 앨범을 낸 멤버 중 판매량 10만장을 돌파한 가수는 빅뱅의 지드래곤, 엑소의 레이, 사이니의 태민, 소녀시대의 태연 등 여럿이다.
‘비 오디너리’는 일상의 감성을 담은 앨범으로, 타이틀곡 ‘매일 듣는 노래’는 이별을 겪은 사람이라면 공감할 노랫말에 피아노와 현악기 선율이 조화를 이룬 발라드다.
/연합뉴스

변진섭, 30주년 기념 앨범...대중과 함께 만든다

1980~90년대를 풍미한 발라드 가수 변진섭(51)이 데뷔 30주년 앨범을 대중과 함께 만든다.
21일 컴퍼니에이엔티에 따르면 변진섭은 7월31일까지 음악 거래 플랫폼인 셀바이뮤직(sellbuymusic.com)에서 30주년 앨범 발매곡 공모전을 진행한다.
그는 또 이 사이트에서 자신이 작곡한 곡에 가사를 붙이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댓글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코러스 참여 기회도 제공한다.
컴퍼니에이엔티 관계자는 “변진섭씨의 자작곡과 공모곡을 함께 수록할 예정”이라며 “좋은 곡이 모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진섭은 경희대 농학과 재학 시절 캠퍼스 그룹인 ‘탈무드’ 5기 멤버로 1987년 MBC ‘신인가요제’에 참여하며 가요계에 첫발을 디뎠다.
그해 1집 ‘홀로한다는 것’이 히트하며 인기 반열에 올랐고 2집에서 ‘내에 게로 또 다시’, ‘숙녀에게’, ‘로라’,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희망사항’ 등 다수의 곡이 히트하며 밀리언셀러를 기록했다.
그는 30주년 앨범 출시에 앞서 7월 1일 오후 7시 서울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을 시작으로 내년 5월까지 전국투어를 개최한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Time, Program Name, and Details.

Table with 4 columns: Time, Program Name, Details, and EBS1 Program Name.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22일 (음 5월 28일 庚辰)
48년생 기막히게 좋은 운수이니 성사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60년생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형세는 마한 가지이다. 72년생 어렵사리 얻은 것이 결과적으로 거주장소로워지겠다. 84년생 흑백논리로 따질 일이 아님을 알자. 행운의 숫자 : 09, 63
49년생 평상시에 갖추고 있어야 제때에 활용할 수 있다. 61년생 소중히 여겨 왔던 것이 빛을 보게 된다. 73년생 최선을 다 해왔는지 돌아켜 볼 일이다. 85년생 손에 잡힐 듯하더라도 연결되지 않아서 답답할 수다. 행운의 숫자 : 98, 61
50년생 일의 선후를 정한 다음에 중점 사항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자. 62년생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운색여서는 아니 된다. 74년생 주저하다가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86년생 절대로 이행해야만 차질이 없으리라. 행운의 숫자 : 41, 33
51년생 행하기 힘든 과정인 만큼 수확의 결실도 알차겠다. 63년생 확고한 시작은 오류를 부르기에 충분하다. 75년생 한데 모여 비로소 갖추어질 것이다. 87년생 경사가 급한 비탈길을 내려오고 있다. 행운의 숫자 : 77, 20
52년생 뜻하는 비대로 조성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기대해도 된다. 64년생 막연하다면 실감감만 얻어 줄 뿐이다. 76년생 희망의 물꼬를 트는 변화가 나타난다. 88년생 지리멸렬하다가 마지막에 안터를 지는 이치이다. 행운의 숫자 : 13, 54
53년생 반복되는 법이니 항상 잊지 아니하고 머리에 새겨 두어야만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65년생 조용히 담겨두는 것이 백번 낫다. 77년생 형편과 처지에 맞아야만 하느니라. 89년생 동기를 부여하는 기분이 조성되리라. 행운의 숫자 : 65, 44